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89
SEP 17 2021

발간년월 2021년 9월 17일(통권 제189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동방경제포럼, 다양한 극동개발사업 논의하고 폐막
- 러시아,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해주 헬륨센터 시운전
- 러 북극·극동지역 어항에서 수산물 물류 통합개발 추진
- 러 FESCO, 블라디보스톡항에 새로운 계류장 건설
- 프리모리예, 나호트카 지역 교량 5개 올해 건설 끝낸다.
- 바니노 항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컨테이너선 입항
- 로사톰·FANU, 북극항로 디지털 플랫폼 개발 합의
- 인도, 러 'Arctic LNG-2'의 지분 9.9% 확보 검토

주요 통계

-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동방경제포럼, 다양한 극동개발사업 논의하고 폐막

■ 제6차 동방경제포럼 2년 만에 9월 2일 ~ 4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려^{a)}

- 제6차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이 ‘변화하는 세계 속 극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New Opportunities for the Far East in a Changing World)’를 주제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번 포럼에는 51개국에서 약 4,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한·러, 러·중, 러·일, 러·아세안, 러·유럽 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비롯해 약 70여 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
-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436편의 항공기를 통해 약 3만 6,000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했다고 발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열린 이번 포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헨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했을 뿐 정상급 인사의 참석은 없었음
-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3대 경제포럼(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소치투자포럼) 중 하나로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협력 강화가 목적

■ 푸틴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러·일 관계, 북극항로 개발 등에 대한 입장 설명^{b)c)}

- 푸틴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러·일 사이 “평화협정이 없다는 것은 난센스”지만, 평화협정에 앞서 “미군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 배치되는데 대한 우려를 일본이 해소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쿠릴열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토지세 등을 10년간 면제하고 관세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모든 국가의 관심을 환영하며,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파트너들과 대립하지 않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북극은 러시아 영토의 18%에 이르는 지역으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막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화상 연설[㉠]

- 우리나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관광협력 분과 : ‘관광’ 새로운 환영의 시대((Tourism: A New Era of Hospitality)에 특별 발제자로 참가하여 발표
- 이인영 장관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9개의 다리(9-Bridge)’ 전략을 설명하며, 한·러 간 협력을 강조
-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간 협력을 주변국까지 연결하는 구상이라고 소개한 데 이어, 협력의 중심에 위치한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협조를 당부

■ KT는 극동개발공사와 검강검진센터·인터넷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MOU[㉡]

- 동방경제포럼 공식 파트너사로 참가한 KT는 극동개발공사와 인허가 확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
- KT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와도 건감검진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했으며, 향후 한국보건사업진흥원, 부산대병원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
- 또한, 블라디보스톡에 인터넷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모스크바에 집중된 러시아의 통신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극동 진출 기업 지원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

그림.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 <https://tass.com/politics/1333613>

■ 제6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 380개, 493억 2000만달러 이상의 계약 체결^{f)g)}

- 유리 트루트네프(Yury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는 중국과 9건, 일본과 6건, 카자흐스탄과 3건 등 총 380개, 493억 2,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러시아 타스(TASS)통신에 따르면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 러시아 연해주 지역 관광 및 관련 산업은 약 2,058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

진희권 전문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a) <https://tass.com/economy/1336433>(2021.9.14. 검색)
- b) <https://tass.com/politics/1333613>(2021.9.14. 검색)
- c) <https://tass.com/politics/1333735>(2021.9.14. 검색)
- d)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907(2021.9.14. 검색)
- e)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02/2021090200021.html>(2021.9.14. 검색)
- f) <https://tass.com/economy/1334595>(2021.9.14. 검색)
- g) <https://tass.com/economy/1334403>(2021.9.14. 검색)

러시아,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해주 헬륨센터 시운전

■ 9월 3일, 세계 최대 헬륨 허브 시운전 기념식 화상으로 진행^{a)}

- 러시아 연해주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 헬륨 물류센터 시운전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알렉세이 밀러(Alexei Miller) 가즈프롬(Gazprom) 회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
-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Nadezhdinskaya) 선도개발구역(PDA: priority development area)에 위치한 허브는 아무르 가스플랜트(GPP: Gas Processing Plant)에서 생산된 헬륨 물류를 담당
- 아무르 가스플랜트에서 생산된 헬륨은 영하 269°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와 특수 제작된 트럭(KAMAZ-5490 Neo)을 이용해, Gazprom Helium Service를 통해 운송
- 아무르주 스보보드니(Svobodnyy)에 위치한 가스플랜트는 약 130억 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2021년 6월 9일 시운전을 시작해 현재 2개의 라인이 가동 중이며, 2025년까지 총 6개의 생산라인을 완공할 예정
- 아무르 가스플랜트가 완공되면 연간 에탄 240만 톤, LPG 150만 톤, 6천만m³의 헬륨을 생산할 예정

그림. 헬륨 운반 전용 트럭 KAMAZ-5490 Neo



자료: <https://www.gazprom.com/press/news/2021/september/article536871/>

■ 향후 세계 헬륨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b)c)}

- 헬륨은 우주항공과 첨단 의료장비, 반도체 생산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헬륨이 매장된 국가는 미국, 카타르, 러시아, 폴란드 정도에 불과
- 전세계 헬륨 시장의 비중은 미국(70% 이상)이 압도적이며, 알제리, 카타르, 러시아, 폴란드 순이나 최근 미국이 공급량을 감축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
-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헬륨 증산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헬륨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

그림. 러시아 헬륨 허브



자료: <https://www.gazprom.com/press/news/2021/september/article536871/>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a) <https://www.gazprom.com/press/news/2021/september/article536871/>(2021.9.15. 검색)
- b) <https://www.nytimes.com/2020/12/08/business/energy-environment/russia-helium.html>(2021.9.15. 검색)
- c) <http://www.iga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4>(2021.9.15. 검색)

러 북극·극동지역 어항에서 수산물 물류 통합개발 추진

그림. '어항' 프로젝트



자료: Vostok-Media

- '어항'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극과 극동 지역에 현대적인 어항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국영 투자 은행인 VEB.RF가 지원하는 가운데, 리바.RF 기업(Ryba.RF Corporation)이 투자 주체가 되어 앤티 그룹(Antey Group of Companies)과 북서 어업 컨소시엄(Northwest Fishery Consortium)이 투자 파트너십 형태로 참여할 예정임
- 프로젝트 총 투자 금액은 520억 루블에 달하며 항구의 총 화물 처리량은 460만 톤으로 추산됨
- 이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은 북극 및 극동 지역의 4대 어업 항구인 무르만스크(Murmansk), 사할린 주의 코르사코프(Korsakov),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키(Petropavlovsk-Kamchatski) 항구의 기존 어항을 개조하고,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의 케이프 나지모프(Cape Nazimov) 항구에 새로운 어항을 만드는 것임
- 4개 항구와 어업 회사에 총 3만 5,000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냉동 단지, 11만 톤의 용량을 가진 복합 단지,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라인과 거래 및 가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동시에 건설할 계획임
- 수산물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로 NSR과 철도를 통한 수출 기반, 러시아 중부 지역의 단일 수산물 공급망을 형성할 예정이며, 러시아 국내 어업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어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임

- VEB.RF의 아르티옴 도블라토프(Artyom Dovlatov) 부회장은 학교, 병원, 상점에 저렴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라고 언급함
- 리바.RF기업(Ryba.RF Corporation)의 알렉산더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 사무총장은 프로젝트를 통해 어업 비즈니스 효율성과 가용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함



자료: VEB

김혜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pdud027@hufs.ac.kr)

참고자료

a) https://vostokmedia.com/cards/03-09-2021/v-arktike-i-na-dalнем-vostoke-sozdatut-set-sv-yazannyh-drug-s-drugom-rybnyh-portov?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2021.9.9. 검색)

러 FESCO, 블라디보스톡항에 새로운 계류장 건설

그림. 블라디보스톡 무역항 전경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prichal_vo_vladivostoke_dlya_gruzov_po_smp_postroyat_ne_pozzhe_marta_2026_g.html

■ 동방경제포럼에서 건설 추진 방안 천명^{a)}

- 러시아 선사 FESCO는 동부 교통물류허브(Eastern Transport and Logistics Hub) 프로젝트를 위한 계류장을 블라디보스톡 무역항(VMTP)에 2026년 3월까지 건설할 예정이라고 아르카디 코로스텔레프(Arkadii Korostelev) 회장이 ‘2021 동방경제포럼’에서 언급함
- 코로스텔레프 회장은 현재 계류장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투자를 결정하는 한편, 신설될 계류장은 이동식으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로사톰 계열사와 협력 사업 MOU 체결^{b)}

- ‘2021 동방경제포럼’에서 FESCO와 로사톰 계열사 아톰에네르고프롬(Atomenergoprom)은 동부 교통물류허브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양측은 블라디보스톡 무역항(VMTP)에 계류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계류장 건설은 항만의 화물 처리량을 증가시켜 추가 화물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동부 교통물류허브 프로젝트는 로사톰(Rosatom)의 북극항로를 이용한 동아시아-북서유럽 간 컨테이너 화물 운송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임
- 궁극적인 프로젝트의 대목표는 동부교통물류허브를 포함 러시아 서부 및 동부에 2개 물류허브를

조성하여 북극항해 선박과 피더(Feeder)선 간의 컨테이너 환적을 가능케 하는 것임

- 코로스텔레프 회장에 따르면, 현재 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2021년 말까지 프로젝트 작업 설계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로사토크와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prichal_vo_vladivostoke_dlya_gruzov_po_smp_postroyat_ne_pozzhe_marta_2026_g.html(2021.9.14.검색)
- b) <https://www.fesco.ru/ru/press-center/news/fesco-i-struktura-rosatoma-planiruyut-sozdat-na-territorii-vmtp-transportno-logisticheskij-uzel-dlya/>(2021.9.14.검색)

프리모리에, 나호트카 지역 교량 5개 올해 건설 끝낸다.

그림. 나호트카 지역 교량 건설 현장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7/91605/>

■ 프리모르스키 정부, 파손된 도로와 다리 건설 역점^{a)}

- 올렉 코제마코(Oleg Kozhemiako) 프리모르스키(Primorsky) 지방 주지사는 나호트카(Nhahodka)로 향하는 새로운 교량과 도로가 프리모르스키 지방에 건설될 예정이며, 올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현재 나호트카 시로 향하는 도로들은 실질적으로 다수 파괴된 바, 최근 2년 동안 프리모르스키 지방 정부는 대규모 도로 개선사업과 교량 건설을 진행하였음
- 이 같은 도로망 훼손은 교량 구조물들이 프리모리에 지방에서 활발하게 지속된 다양한 건설 작업으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이며, 2020년 기준 146개의 다리가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음
- 프리모르스키 지방 정부는 올해 5개의 교량을 건설하고, 2022년에 계획된 나머지 교량도 건설할 예정임
- 나호트카 시의 도로망 건설 및 재건 작업은 “2020~2027 프리모르스크(Primorsky) 지방 교통 종합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교량 및 도로 건설에 3년 동안 550억 루블을 투입

- 코제마코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도로 건설 예산이 최근 몇 년 동안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도로 재건 및 건설에만 550억 루블이 투입됨
- 그러나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프리모르스키 지방 정부와 현지 건설사들은 도로 재건과 건설사업에서 상당한 경험과 추진 동력을 얻었으며,
-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도로 건설기업인 프림아프토도르(Primavtodor)의 지사 재운영 추진 및 건설사들의 기술 역량과 재정 강화가 가속화되어 도로 건설 업계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지역 도로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바니노 항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컨테이너선 입항

그림. 바니노 항 컨테이너선 입항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91574/>

■ 자동차 부품 등을 적재한 211개의 컨테이너 하역^{a)}

-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등이 적입된 40FEU 컨테이너 박스 211개를 적재한 길이 132.7m의 ACACIA WA 선박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방에 위치한 바니노 항만에 처음으로 입항하여 컨테이너를 하역함
- 이번에 하역된 화물은 2019년에 설립된 Haval Motor Manufacturing Rus 자동차 공장이 소재한 툴라(Tula) 주까지 철도를 통해 수송될 예정임
- 바니노 항은 1980~90년대 초, 2000년대에 바니노-마카단, 바니노-캄차트카, 바니노-한국에 이르는 컨테이너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은 석탄 수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음
- 다수의 바니노 항의 관계자들은 이번 컨테이너 선박의 입항을 반기는 분위기이며, 이 항만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컨테이너 운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91574/>(2021.9.14.검색)

로사톰·FANU, 북극항로 디지털 플랫폼 개발 합의

■ 북극해 항로 디지털 서비스 통합 플랫폼 개발^{a)}

- 로사톰(Rosatom)은 FANU(동방국가계획센터, Vostokgoplan)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북극해 항로의 경제 및 운송정보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계획함
- 올해 9월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EF)에서 로사톰 북극항로 개발부 막심 쿨린코(Maxim Kulinko) 국장과 FANU의 미하일 쿠즈네소프(Mikhail Kuznetsov) 이사가 협의서를 체결함
- 전문가들은 디지털 서비스 종합 플랫폼 ‘Arcticlabs’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 대책과 성장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곧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과 북극항로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예상함

■ ‘Arcticlabs’을 통해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예정

- 해당 플랫폼에는 항해 관리, 항해 및 수로 지원, 항해 기상 수문 지원, 수역 안전보장, 해양환경 및 생태 조건 모니터링, 북극항로 기능 및 개발 효율성 분석, 북극항로 모니터링 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임
- ‘싱글 윈도우’ 제도를 통해 화물 운송업자, 선주 및 선장, 보험사, 항만 터미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함
- 따라서 ‘Arcticlabs’시스템은 종합 지표의 정기적 도출, 쇄빙 지원과 같은 인프라의 병목 현상 식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안 개발,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임
- 쿠즈네초프(Kuznetsov) 장관은 로사톰과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제품을 개발할 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인도, 러 ‘Arctic LNG-2’의 지분 9.9% 확보 검토

■ 인도의 ONGC 비데시(Videsh) 및 페트로넬(Petronet)은 Arctic LNG-2 지분 매입을 검토 중임¹⁾

- 인도의 석유·천연가스부 푸리 장관을 비롯한 인도 경제 대표단이 최근 러시아의 노바텍(NOVATEK)과 Arctic LNG-2 프로젝트 참여 방안 및 전망 등에 대해 협의했음
- 노바텍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 전부터 Arctic LNG-2 지분을 50.1%까지 줄일 수 있어, 투자자들은 추가로 9.9% 만큼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힘
- ONGC 비데시와 페트로넬 컨소시엄이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인도는 Arctic LNG-2 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현재 Arctic LNG-2프로젝트의 참여자는 노바텍(60%), 프랑스 토탈에너지, 중국 CNPC, CNOOC, 일본 Mitsui 및 JOGMEC 컨소시엄(각각 10%씩 보유) 등임
- Arctic LNG-2는 노바텍의 두 번째 LNG 생산 프로젝트로, 연간 660만 톤(총 용량 1980만 톤)의 LNG 생산 라인과 연간 최대 160만 톤의 가스 응축수 생산을 위해 3개의 트레인이 건설됨. 첫 번째 라인은 2023년, 두 번째는 2024년, 세 번째는 2025년에 가동될 예정임

■ 2019년 9월에 Arctic LNG-2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

- 노바텍과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서명한 SPIEF-2018 규제 내의 협약에서는, 토탈에너지가 추가(5%)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고, 10%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였음
- 다만, 추가 지분 인수와 관련해 FAS(Federal Antimonopoly Service)가 협약 내용을 검토한 바와 같이 토탈에너지는 10%만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음
- 또 다른 잠재적 파트너였던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는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철회하고, LNG 생산을 위해 미국의 프로젝트를 선택했음
- 2018년 2월 노바텍과 사우디 아람코는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으나, 2019년 5월 사우디는 미국 쉘프라 에너지(Sempra Energy)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아서 항(Port Arthur) LNG 프로젝트에 25%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그러나 쉘프라 에너지는 FID를 여러 차례 연기했고, 결국 2022년 FID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 사이 러시아의 Arctic LNG-2의 최종 투자 결정(FID)은 2019년 9월에 성공적으로 마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푸리 장관에 의해 에너지 부문에서 인도-러시아 협력 관계가 다시 설정되고 있음

- 2020년 1월 인도의 석유·천연가스부 프라드한(Pradhan) 장관은 이스트 오일(East Oil)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이후 코로나19로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 새로 임명된 푸리 장관은 그동안 Arctic LNG-2 프로젝트 지분 확보를 위해 노바텍과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인도와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도는 로즈네프트(Rosneft)의 보스톡 오일(Vostok Oil)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참고자료

- a) <https://neftegaz.ru/news/Acquisitions/695882-uchastnikami-proekta-arktiki-spg-2-mogut-stat-indijskie-kompanii-vozmozhnosti-est/>(2021.9.13.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 수역* | 건화물 | 액체화물 | 합계 | 2020/2021 증감율 |
|--------|----------------|---------------|-------|------------------|
| 극동지역 | 13.48 (+7.2%) | 5.74 (-5.1%) | 19.22 | +2.8% |
| 북극해 | 2.91 (+1.6%) | 5.57(-1.2%) | 8.48 | -0.4% |
| 발트해 | 10.3 (+6.6%) | 10.57 (-5.7%) | 20.87 | -0.3% |
| 아조프-흑해 | 21.64 (+10.4%) | 11.51(-1.2%) | 22.88 | +3.5% |
| 카스피해 | 0.16 (-32.9%) | 0.38 (-0.9%) | 0.54 | -14.6% |
| 합계 | 36.98(+7.1%) | 33.77(-3.3%) | 70.55 | +1.5% |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6908/>(2021.8.1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5455/>(2021.8.14. 검색)

표.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 EAEU 코드 | 품목 | 해외* | | CIS** | | 합계 | |
|-----------------|----------------------|-------------|-----------|-----------|----------|-------------|-----------|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01-24 | 식료품 및 원자재 | 255,992.2 | 68,996.9 | 1,479.9 | 1,414.0 | 257,472.1 | 70,410.9 |
| 25-27 | 광물 제품 | 3,169,535.8 | 30,354.4 | 62,729.7 | 79,648.8 | 3,232,265.6 | 110,003.2 |
| 27 | 연료 및 에너지 제품 | 2,842,832.9 | 29,555.4 | 363.3 | 0.92 | 2,843,196.1 | 29,556.3 |
| 28-40 | 생고무 화학 제품 | 4,936.9 | 72,139.6 | 1,278.9 | 1,063.0 | 6,215.8 | 73,202.6 |
| 41-43 | 가죽원료모 피 제품 | 17.5 | 2,051.4 | 100.3 | 8.0 | 117.7 | 2,059.4 |
| 44-49 |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 136,604.0 | 9,183.8 | 1,578.0 | 6.3 | 138,181.9 | 9,190.1 |
| 50-67 |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 708.1 | 42,827.8 | 154.6 | 624.7 | 862.7 | 43,452.6 |
| 72-83 | 금속 및 금속 제품 | 53,849.9 | 83,143.2 | 1,379.7 | 4,372.1 | 55,229.6 | 87,515.4 |
| 84-90 | 기계류 | 24,350.1 | 453,538.0 | 6,521.2 | 2,728.9 | 30,871.3 | 456,266.9 |
| 68-71, 91-97 | 기타 | 385,687.6 | 57,114.5 | 77,273.6 | 290.3 | 462,961.2 | 57,404.8 |
| | 합계 | 4,031,682.1 | 819,349.6 | 152,495.9 | 90,156.2 | 4,184,178.1 | 909,505.8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

표.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 EAEU 코드 | 품목 | 해외* | | | | CIS** | | | | 합계 | | | |
|----------------|--------------------------------------|--------|-----------|--------|-----------|-------|------|----|------|----------|-----------|--------|-----------|
| | | 수출 | | 수입 | | 수출 | | 수입 | | 수출 | | 수입 | |
| | | 톤 | 천 달러 | 톤 | 천 달러 | 톤 | 천 달러 | 톤 | 천 달러 | 톤 | 천 달러 | 톤 | 천 달러 |
| 0302 | 냉장수산물 | 371 | 469.9 | - | - | - | - | - | - | 370.5 | 469.9 | - | - |
| 0303 | 냉동수산물 | 74,588 | 103,218.3 | -1,061 | -4,916.8 | 27 | 35.7 | - | - | 74,614.8 | 103,254.0 | -1,061 | -4,916.8 |
| 03031 | 연어 | 7 | 54.6 | - | - | 0 | 0.0 | - | - | 6.7 | 54.6 | - | - |
| 030331 | 광어 | 445 | 2,441.4 | - | - | - | - | - | - | 444.6 | 2,441.4 | - | - |
| 030332 | 가자미 | 1,371 | 1,203.9 | - | - | - | - | - | - | 1,370.6 | 1,203.9 | - | - |
| 030339 | 기타 넙치류 | 2,188 | 1,858.1 | - | - | - | - | - | - | 2,188.3 | 1,858.1 | - | - |
| 030351 | 청어 | 7,736 | 5,752.3 | - | - | 0 | 0.0 | - | - | 7,735.6 | 5,752.3 | - | - |
| 030363 | 대구 | 7,665 | 20,157.4 | - | - | - | - | - | - | 7,665.3 | 20,157.4 | - | - |
| 03036 70000 | 명태 | 29,977 | 34,609.2 | - | - | 27 | 35.7 | - | - | 30,004.1 | 34,644.9 | - | - |
| 03038 93 | 농어 | 16 | 46.6 | - | - | - | - | - | - | 16.4 | 46.6 | - | - |
| 030391 | 알류 | 4,241 | 78,804.1 | - | - | - | - | - | - | 4,240.7 | 24,538.1 | - | - |
| 030399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 1,127 | 1,775.8 | - | - | - | - | - | - | 1,126.7 | 1,775.8 | - | - |
| 0304 | 생선 필레 | 8,944 | 29,952.6 | -3,353 | -10,084.0 | 26 | 63.0 | - | - | 8,969.8 | 30,015.6 | -3,353 | -10,084.0 |

| | | | | | | | | | | | | | |
|------------------------------|--------------|-------|-----------|------|--------|---|-----|---|---|---------|-----------|------|--------|
| 0305 | 훈제 생선, 생선 가루 | 13 | 37.5 | -289 | -489.9 | 0 | 0.0 | - | - | 12.5 | 37.5 | -289 | -489.9 |
| 0306 | 갑각류 | 7,724 | 170,943.8 | 51 | 551.8 | - | 0.0 | - | - | 7,724.0 | 170,943.8 | 51 | 551.8 |
| 030614, 030633, 030693 | 게 | 6,805 | 161,672.7 | - | - | - | 0.0 | - | - | 6,805.2 | 161,672.7 | - | - |
| 0307 | 조개류 | 2,261 | 6,599.8 | - | - | 2 | 8.9 | - | - | 2,262.7 | 6,608.7 | - | - |
| 03072 | 가리비 | 856 | 2,019.9 | - | - | - | - | - | - | 855.9 | 2,019.9 | - | - |
| 03074, 03075 | 오징어 및 문어 | 1,207 | 3,171.8 | 261 | 277.0 | 2 | 8.9 | - | - | 1,209.0 | 3,180.7 | 261 | 277.0 |
| 0308 | 수생 무척추 동물* | 693 | 2,980.4 | - | - | 0 | 0.0 | - | - | 692.5 | 2,980.4 | - | - |
| 03081 | 해삼 | 66 | 365.4 | - | - | 0 | 0.0 | - | - | 66.0 | 365.4 | - | - |
| 03082 | 성게 | 627 | 2,615.0 | - | - | - | - | - | - | 626.5 | 2,615.0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8.19. 검색))